

오피니언 리더



조우성
우리중앙교회 성로
(현)리코 CMO

“너는 무엇을 잘하지?”라고 물으면 “음...~하다가 잘하는 것 없어요”라고 대답한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라고 또 물으면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재미있고 행복하지?”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음...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생들과 나는 대화자 아니다. 우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특강 할 때마다 겪는 이야기다.

심장이 될 만큼 신나고 기대되는 일이 많아 할 우리 청소년들의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듯 무미건조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청소년들은 특히 자신의 타고난 재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소년들의 재능 개발과 하나님나라 소명을 이루도록 도와주기 위해 수많은 교재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런데도 주일학교 교육 역시 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 차별화된 것도 없고, 훨씬 더 나은 점도 청소년들이 느끼지 못하다 보니 우리 광주 1,700여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30% 정도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물론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주일학교가 뒷전으로 처진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장이 뛰고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그 무엇이 주일학교에 없는 까닭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요즘 전국적으로 반지고 있는 ‘학교기도불씨운동’에서 해답을 찾았다. 청소년들이 모여 예배하는 현장에는 활화산처럼 뿜어나오는 열정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학교에서 무력하게 보였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내재된 능력과 리더십을 놀랍도록 발휘했다. 창조주 하나님께선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들이 빛을 발하는 열기로 가득하다. “아!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느끼는 순간을 맞았다. 하나님을 알고 삶의 ‘소명’을 받았을 때 재능이 키워지고 빛을 발취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물결을 일으키는 ‘학교기도불씨운동’을 광주에서도 시작했다.

소천하신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해답은 이것이다

많은 것 같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 창조주로부터 재능을 받았다”고 말하면 의아해하는 눈빛이 반짝인다. 사람들은 모두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발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아직 찾지 못했거나 찾았다 할지라도 길러내는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기대만큼 잘하지 못한다고 느끼다 보니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재능은 어떤 분야에서 “어, 하면 할수록 늘고 재미있네.” 스스로 소질을 느끼면서 본격적으로 더 잘하기 위한 고된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게 될 때 서야 반짝반짝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손흥민도 김연아도, 임윤찬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알고 나서부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진 고통을 인내하며 훈련을 거듭했기에 스타가 될 수 있었다.

손흥민 김연아에게 코치가 필요하듯이 스스로 진로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재능을 찾아주고 개발을 도와주는 코치가 이래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재능을 이해하고 실패와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재능을 키워내는 삶의 사나리움을 작성해 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논리와 꿈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세워 체계적인 훈련을 하도록 가르쳐 주면, 수업 내내 확자지킬 떠돌던 철부지 같은 청소년들도, 었드려 자는 것 같은 청소년들도 슬며시 자세를 고쳐 세우고 진지한 눈빛으로 경청한다.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말씀 공부와 함께 청

이 퇴직금 전부를 기증하고 오직 ‘학교기도 불씨운동’에 사용하라고 했던 유언이 불씨가 됐다. 이에 부산 지역 목회자들이 호응하여 연합했다. 그리고 대전 충주 춘천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지난 4월 광주에서도 북한학교를 운영하는 ‘N이전센터’ 대표님과 평생을 대학생 선교와 이주민교회와 교육사역을 해오고 있는 목사님이 ‘학교기도불씨운동’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이를 들었던 광주기독교단연합회 각 단체 대표들이 성령의 역사에 감화돼 “우리가 마중물이 돼주자”고 마음을 합쳤다. 그동안 꾸준히 청소년 사역을 펼치고 있었던 일부 교회 사역자들과도 이후 연합하게 됐고, 이제 광주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오는 10월 18일 토요일 광주 70여 고등학교에 기도 불씨를 놓는 연합의 마당, ‘더블레스 학교기도불씨운동’이 개막된다. 이 운동은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학교와 교회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문화가 변화될 것이다. 다음세대들이 꿈꾸는 학교, 교회,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더블레스 학교기도불씨운동’이 청소년들의 진로와 재능을 길러주고 하나님나라 소명을 이뤄나가게 하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기독청소년들이 일어나 빛을 발취하여 뒤를이긴 학교 문화는 물론 주일학교 참례를 극대화하고 우리 기성세대가 오랫동안 갈망해 온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옥수수과 유전자 변형생물(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생물)는 기존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어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로, 과거에 시행되어 왔던 종자개량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GMO 작물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주변 생태계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할만한 확실한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유전자 간의 혼합과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나 현재의 평가체계 자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GMO 10대 식품은 옥수수, 쌀, 콩, 감자, 카놀라, 토마토, 면화, 파파야, 유제품, 완두이다. 유럽은 식품의 GMO 표기가 의무적이지만, 세계 최대의 GMO 생산국인 미국은 GMO 표기를 의무로 하지 않는다. 옥수수는 GMO 작물 중에서 가장 큰 이슈이다 (말은 GMO 작물이 아니다).

세계 5개 옥수수 생산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이다. 반면에, 세계 5개 옥수수 수출국은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프랑스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 옥수수 수입국이다. 최근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 원재료로 수입한 GMO 농산물이나 이들을 제조, 가공한 식품들의 경우 GMO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국내산 농산물은 Non-GMO이다). 그러나, 한 예로 수입 GMO 옥수수를 원재료로 사용했을까라도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GMO 단백질이 없어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과 같은 식품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식용유, 당류(당시럽, 올리고당, 과당, 포도당 등), 변성전분, 주류 등은 GMO 표시대상이 아니다. 단지 옥수수 원산지 수입국 정도만 표기될 뿐이다. 이러한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된 옥수수 (또는 옥수수 전분)를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저렴한 GMO 옥수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GMO 농산물이나 식품에서 3% 이하의 비의도적 혼입의 경우에도, GMO 식품임을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GMO 식품의 안전성 또는 위해성 문제는 큰 이슈임이 분명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과학적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치적, 그리고 상업적 영역까지도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두 영역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기에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GMO 식품을 미국 본산으로 회사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처음 개발하였다. 최근 미국 FDA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재배되고 판매되는 대표적인 GMO 5대 작물은 옥수수 (92%), 대두콩 (94%), 유채 (카놀라) (95%), 사탕무 (99.9%), 면화 (94%)로, 현재 이들 작물의 거의 대부분을 GMO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상업적 GMO 작물 생산량의 95%에 이른다. 이들 식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식탁이기에 GMO 식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GMO 표기를 강화하는 추세 가운데 소비자도 이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원재 교수

- 서울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85



장찬익 선교사
아일랜드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선교의 돌파구

▶지난호에 이어서

우리는 다 양 갈라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갈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의 짊어지는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상처받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열등감과 무기력과 우울증과 패배감에 빠져서 방황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로 십자가에서 단 번에 영원히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새생명의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이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나의 정체성으로 옛 사람의 허물과 죄를 물리치고 새로운 자아 정체성으로 새 삶을 시작하시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12, 딤후3:16)

둘째,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서 인생이 망해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얹어 메기 위해 주신 법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상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신 승리의 법, 형통케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수1:8) 그러나 이제부터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기력과 패배감에서 일어나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2. 꿈과 소원과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기쁘게 잘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로 열심히 훈련하여 3.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처럼 법대로 신사적으로 최선을 다해 상을 얻고 승리하는 당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당신에게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선교의 시작은 나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2

오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단 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당신이 꼭 아셔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십계명 율법이 더 이상 천국에 가게 하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여 풍성하게 상을 얻고 승리하는 법이

셋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세상에 가시와 영경위가 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사는 발에도 가시와 영경위가 많아서 우리도 가난과 저주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징계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징계와 저주를 단 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자유케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ecc.or.kr>



한현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목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브수적 신앙체제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권리는 본교인 서울 남한총신에서 주관함.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수시접수 (062-266-0153)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 신학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http://gsecc.or.kr>)
- ▶ 주야간반: 매 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 말 반: 매 주 토요일
-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생특별
- ▶ 최고의 교수진 / 실용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 교회개혁,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 한교연, 한기총, 한장원, 세기총 가입 교단

총회신학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